

'젯빛 도심' 광주·전남 11년 만의 황사경보에 시민불편 커

미세먼지 농도 광주 903 μg ·전남 1012 $\mu\text{g}/\text{m}^3$ 온통 뿌연 도심 인파에 '뚝'...자영업자 '울상'

"하늘이 온통 뿌연데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중국발 황사가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에 11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 도시를 뒤덮은 흙먼지와 미세먼지로 하늘은 탁했다.
건물은 1km 이내 거리에서만 식별 가능했다. 수 km 이상 떨어진 건물은 흙먼지에 둘러 쌓여 형태만 간신히 보였다. 곳곳의 차량·건물 유리엔 흙빛

먼지가 자욱했다.
도심엔 오가는 인파도 눈에 띄게 줄어 적막만 흘렀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마스크를 코까지 꼭꼭 눌러 고쳐 썼다.
시민들은 흙먼지로 인해 따끔거리는 눈을 깜빡이거나 손으로 비비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모(63·여)씨는 "마스크를 써도 공기가 텁텁하고 목이 칼칼하다. 급한 은행 일만 보고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모(23)씨는 "이날 외출 시 눈곱

이 끼고, 헛기침이 나온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보며 한해 보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황사'로 도심 유동인구가 크게 줄자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었다.
카페 사장 김모(42)씨는 "날씨가 맑아야 도심에 쇼핑객, 모임 차 방문객이 늘어난다. 평소 오전엔 손님 5명 정도 다녀가는데 이날은 한 명도 없다. 맑은 공기를 되찾아 도심이 활기를 띄고, 매출도 올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광주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전남(구례도) 지난 2010년 3월 20일 황사경보가 내려졌다. 11년 만에 내려진 황사경보다.
황사경보는 시간 당 PM10 미세먼



지 평균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PM10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광주 768 $\mu\text{g}/\text{m}^3$, 전남 서부권(혁신도 관측 지점 기준)은 964

$\mu\text{g}/\text{m}^3$ 으로 집계됐다.
황사경보는 광주와 전남 22개 전 시·군에 내려졌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전남까지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께 광주·전남 황사 농도가 가장 짙고, 흙먼지가 점차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광주시상청 관계자는 "매년 황사가 있지만, 올해의 경우 몽골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불어와 황사경보가 발효됐다. 노약자·어린이·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로 사람 뜬 대학가 상권, 회복은 언제쯤
코로나19 확산이 대학가로 번진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사지숍서 8000원 빼앗은 50대 강도, 징역 10년

法 "강도죄 3차례 실행에 누범기간 재범"

마사지숍 업주와 종업원을 결박하고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께 광주 모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규정을 고려해 "A씨는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광주 동전노래방 환풍기서 바이러스 검출... "환기 중요"

광주 동구 동전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한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노래방 환풍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공기중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방기 사용이 느는 여름철을 앞두고 실내환기와 환기구 방역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16명(방문자 10명, 접촉자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모 동전노래방 현장에서 58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28개 방 가운데 26번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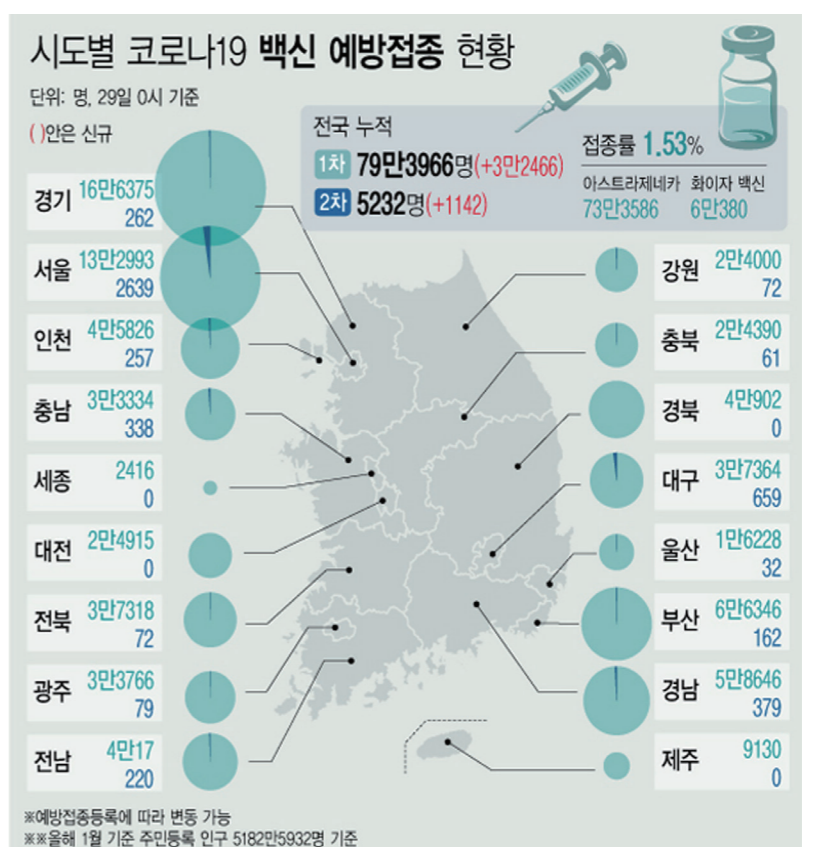
14번방과 20번방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값이 나왔다.

환경 검체 분석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내 공용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정밀역학조사다.

손잡이와 마이크, 책자, 테이블 등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환풍기를 타고 해당 노래방 부스 안에서 감염이 진행됐던지, 실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풍기를 트는 순간, 수직 환기구로 들어가 천장 덕트 등을 타고 옆 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북구 모 집단 감염 시설 내 시스템 에어컨



공기 흡입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최대 16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고 의류나 나무, 종이 표면에서도 3~4일 간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냉방기 등 환기구를 통한 전파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화장실 환기구, 냉방기 공기 유입부, 폐쇄공간 내 환풍기 모두 위험하다"는 게 입을 모은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밀폐된 공간의 환풍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추가 방역을 서둘러 실시했다"며 "이번 사례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